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하루에 한번 클릭으로 전세계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낼 수 있습니다.’
부 다 피 아 (www.buddhania.com) 에는 세계적인 식량주기 사이트(www.thehungersite.com)와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실 이웃을 돕고싶고 그렇게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하는 것이 선업을 짓는 것임을 알고 있지만, 막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한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인터넷이 마련한 사이버공간에 개설한 불우이웃 돕기 코너들은 수고스럽게 행사장을 찾을 필요가 없고 또 방법도 다양하다.

서울 우이동 도선사 신도 K씨는 물에 흥터가 있다. 그 거사는 그 흥터가 보기 싫지만, 달리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 가는 일이 비용면에서나 시간 면에서나 부족한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 인터넷을 서핑하다 우

연히 무료로 흥터제거 수술을 해 주는 곳을 보고 신청해 지금은 수술을 받고 치료중이다. 수술 결과가 좋아 지금은 더없이 행복해 하고 있다.

이쯤되면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삶을 중요하게 가꾸기 위한 도구가 되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열린 공간이 된다.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가 무효다. 심지어 이용자를 모으기 위해 돈을 적립해온다거나 사은품을 배당해주는 등 사용자들 구미에 맞는 상품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접속해보면 클릭 몇수만 눌러 이익을 보려는 사악자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이익창출을 위한 서비스 보기는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으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 훈훈한 정을 나누는 활동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n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회원문의 189-13-0329-3
국문문의 827-25-0020-943
문의 069-01-23223
세종주 불교방송

3명중 2명 “오계 잘 모른다”

승가대 유승무 교수 재가불자 信·解·行 설문

“육바라미 안다” 34%...“연기법 확산” 49%
신행생활 불만족 52%...변화 필요 73%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인 삼보(삼귀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불자들이 24.8%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육바라미는 34.2%, 팔정도는 23.4%, 오계는 34%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6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개최한 신행혁신 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와 박수호(고려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씨의 ‘설문조사를 통해 본 신앙형태’를 통해 밝혀졌다. 설문조사는 재가불자의 종교성을 신(信), 해(解), 행(行)으로 문항을 나눠 실시했으며, 수거된 448부를 토대로 분석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믿음(信)의 경우 ‘개달음(법)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문항에 74%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도 26%를 차지했다. 또 연기법의 실상을 확산하는 사람도 49%에 불과했으며, ‘삼은 고(苦)’라는 대답도 43%밖에 안돼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연기법과 사성제에 대한 믿음이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해(解)의 실태를 보면 재가불자들의 52%가 현재 자신의 신행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며, 재가불자의 73.4%가 자신의 신행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종단이나 중앙신도회를 중앙기구에 근무하는 불자들의 20%가 ‘매우 필요하다’고 밝혀 신행체계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불자들이 가장 자주 실천하는 신행(行)활동은 염불(28.3%), 참선(20.7%), 절하기(15.4%), 법회참석(14.5%)순으로 나타났다. 신행활동중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생(27.8%), 참선(21.5%), 축원기도(21.3%)등을 꼽았다. 법회참석의 경우 1주일에 한번(46.7%), 한달에 한번(41.2%)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자의 58%가 사할 및 직장, 단합신도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감(57%)이 강하고 참여(58%)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자들은 기초교리에 대한 낮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신행생활은 왕성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중구조의 양상을 띠었

다. 이는 교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실천의 밑바탕이 되지 못하고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행구조의 이중성을 꼽히는 것이 과재라고 지적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지키려는 신행체계와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실천행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 나가는 과제를 신행혁신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교

수는 또 △지식기반, 정보사회와 원리를 활용하여 교리교육 강화, △대승적 믿음 구조를 신행의 사회성으로 강화, △기존 신행형태의 개혁등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명승(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중앙신도회 부회장도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불자다워지고 불교다워질 수 있도록 신행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nia.com)

5월 7일 종로거리 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주요행사 일정 확정

불기 2544년 부처님오신날을 장엄할 주요 행사 일정이 확정됐다. 봉축 법요식은 5월 11일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의 사암에서 봉행하며, 이에 앞서 연등축제는 7일 동대문운동장과 종로거리에서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장대준)의 회장, 집행위원장 임택)는 6일 서울 봉축위원회를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동(동)문화의 향상 △연등축제를 전통문화축제로 만들어나간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 대구, 광주, 전남 봉축위원회는 28일부터 부산발전기

원 3천에 찾아정진(부산역 광장), 뮤지컬 ‘오 부처님’ 공연(대구시민회관), 영·호남을 위한 열린음악회(광주 무각사) 등을 보인다. <주요행사 일정 3면>

봉축위원회는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부처님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를 실현하기 위해 사찰과 소년소녀가장과의 자매결연, 사찰 내 봉사조직 결성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실천봉사정중회의 등은 복지시설 방문과 자비발레이봉사, 불교인권문화제를 개최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경남 진해 성종사 스님들이 절 뒤길 채마밭으로 불맛이를 떠냈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북돋아진다. 다른 것과 췌는 것을 뒤섞어야 새싹이 움을 대지가 된다. 높은 흙을 밟고 있는 밭바닥으로 온다. 사진=고영배 기자

정부, 달라이라마 방한 거부

외교부차관 “시기상조”

한국정부는 최근 티베트의 정치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위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은 4일 조계사 인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회의실에서 73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불교대행위’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과 중국과의 정치·외교·통상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시기상조”라며, 최근 인도 뉴델리대 사관을 통해 이같은 한국정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불교대행위는 “문화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찾고 국민의 종교·인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방한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제 NGO와 연대해 오는 10월 ‘아름 2000 민간포럼’에 달

라이 라마를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대행위는 29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를 위한 대법회를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종교지도자 금강산 순례

5월 1~4일, 150여명 참석

불교 원불교 개신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금강산 순례에 오른다.

한국종교인류학회(KCRP, 회장 최창규 성균관대)는 4일 회의를 열고 7대 종교지도자와 은계려소삼기운동 유공자 등 모두 150여명 규모로 금강산 순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정은 5월 1~4일까지다.

주요 프로그램은 특별강연회(주제 및 연사는 미정), 선상음악회, 남북종교교류활동 사진전 및 VTR 시청, 평양교예단 공연 관람 등이다. 정성운 기자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법문도 듣고 쇼핑도 하고

현대불교-프리즘정보시스템 제휴 5월 중순 ‘불교정보서비스’ 시작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 단말기로 법문을 듣고 불교 문화를 감상하며 쇼핑도 즐길 수 있는 ‘무선불교정보서비스’가 5월부터 선보인다. 현대불교신문사(대표 김광삼)는 6일 무선정보서비스 벤처기업인 프리즘정보시스템(대표 나인석)과 ‘무선네트워크 불교정보서비스’ 제

휴협약을 체결. 이르면 5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인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법문·뉴스·경매·쇼핑 등 분야에서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멀티미디어로 개발하고, 이를 프리즘정보시스템이 네트워크 해 무선인터넷단말기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프리즘 프리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왼쪽)과 나인석 프리즘 정보시스템 사장이 제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기로 인터넷에 접속, 이용하는 ‘무선정보서비스’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무선 네트워크 분야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nia.com)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를 공부하는

한국고승 초청 제10회 법왕사 경율론 삼장 백고좌(百高座) 대법회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법왕사에서는 부처님 출가일인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1백일간 한국 불교의 큰스님 1백인을 초청, 법문을 듣는 백고좌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의 팔만사천 법문을 두루 공부하는 ‘경율론 삼장의 세계’를 주제로 전국의 고승대덕들을 법사로 초청합니다. 불자들에게는 많이 동참하시어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법회 일정
일시 : 불기 2544년 3월 13일 ~ 6월 20일(100일간)
장소 : 법왕사 큰법당(대구 수성구 파동 산 116번지)
시간 : 오전 10시 30분(108배) 11시 30분부터 법문
문의 : 법왕사 중무소 ☎ 053-766-3747, 9088

대한불교 조계종 비승산 법왕사 주지 實相 監掌

- 법회기간 중에는 점심공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6월 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회향법회를 봉행합니다.
- 법회기간중에는 영가천도 49제와 100일 기도를 동시에 봉행합니다.
- 백고좌법회에 법사로 모시고 싶은 스님 추천을 바랍니다.
- 백고좌법회에 동참하실 전국의 사찰이나 각 신행단체는 미리미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동국대 교수초청 아리대법회
- 기간 :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7시
법왕사 큰법당(3개월)

◆ 불교대학 증급반 <대승기신론>강좌
- 일시 : 4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운문사 일진스님
- 장소 : 법왕사 큰법당, 90분간 강의

◆ 모이자! 6월 20일 실내체육관 백고좌 회향법회장으로
- 제1부(오후 1시) - 고산스님 초청 불명 및 보살계 수지 대법회
- 제2부(오후 2시) - 제10회 백고좌회 회향식, 법왕상 시상식
- 제3부(오후 2시 30분) - 공연, 어울마당, 불자연예인 초청

◆ 법왕합창단 합창발표회
- 일시 : 6월 9일 오후 7시
- 장소 : 대덕문화회관
- 지휘 : 유양환(법왕합창단 지휘자)
- 특별출연 : 시명스님, 정륜스님 모리터국악원
류연경 선생님의 7인

법왕사 송두관음상